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KRX 섹터지수 정기변경

반도체 등 리밸런싱 주목

- KRX, 1년 1회 9월 섹터지수(반도체, 증권, IT, 자동차 등)의 정기변경 실시함
- 각 섹터의 종목당 Cap 20% 제한으로 반도체 Top2 종목의 비중 축소와 반도체 소부장 종목의 비중 확대 예상
- 신규편입(반도체-테스/티에스이, 은행-케이뱅크, IT-심텍/피에스케이/파두 등)과 제외종목에 대한 ETF 리밸런싱 유의

WHAT'S THE STORY?

KRX 섹터지수 정기변경: KRX는 1년 1회 섹터지수(반도체, 정보기술, 은행, 증권, 자동차 등)의 정기변경을 실시함. 섹터별 누적시총 상위 95% 및 일평균 거래대금 상위 90% 이내를 충족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정기변경을 실시함. 1년 1회이기 때문에 매출 구조의 변동이나 주가의 등락에 따라 비교적 큰 폭의 종목교체가 발생할 수 있음.

종목당 20% Cap 제한: KRX 섹터지수는 각 섹터의 편입종목 비중을 최대 20%으로 제한함. 직전 정기변경 이후 주가 등락으로 20% Cap을 상회할 경우 해당 종목의 비중을 20%으로 낮추고 나머지 종목의 비중을 상향조정해야 함. 반도체 섹터의 경우 SK하이닉스가 30% 중반을 상회하는 등 Top2의 비중을 낮추고 나머지 편입종목 비중을 상향조정함.

종목 편출입: 반도체 섹터에서 테스와 티에스이가 신규편입하고 고영과 테크윙 등 16종목이 제외됨. 은행 섹터에서 케이뱅크의 편입과 제주은행의 제외가 예정됨. 증권 섹터에서 SK증권/유진투자증권/부국증권이 제외됨. 필수소비재 섹터에서 달바글로벌이 편입되고 삼립/빙그레 등 12종목이 제외됨.

관련 ETF의 리밸런싱 집중(9월물 선물만기일): 섹터지수의 정기변경일이 9월물 선물만기일 익일이기 때문에 관련 ETF의 리밸런싱은 9월물 선물만기일 당일 증가에 집중될 것임. Cap 조정과 종목 편출입에 의해 일부 종목의 경우 선물만기일 증가 가격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KRX 섹터지수 정기변경에 따른 리밸런싱 효과

KRX 섹터지수 정기변경

KRX 섹터지수 정기변경: KRX가 산출하고 있는 섹터지수 (반도체, 정보기술, 은행, 증권, 보험, 자동차, 에너지화학, 철강, 방송통신, 건설, 기계장비, 운송, 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K콘텐츠)의 정기변경을 매년 1회 9월물 선물만기일 익일에 실시함. 섹터지수의 특성상 매출구분이 명확하고 구성종목의 섹터변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1년 1회만 정기변경을 실시함.

KRX 섹터지수는 각 섹터별로 누적시가총액 상위 95% 이내이고 일평균 거래대금 상위 90% 이내에 포함되는 7월말 기준 KRX TMI 구성종목에서 선별함. 유동시가총액 기준으로 섹터지수를 산출함.

종목당 Cap 20% 제한: KRX 섹터지수는 대형주의 섹터지수 장악을 제어하기 위해 특정종목의 시총 비중을 정기변경 시점에 20%으로 제한하고 있음. 1년간 주가 등락으로 시총 비중 20%를 상회하는 종목이 발생하면 9월 정기변경에서 해당 종목의 시총 비중을 20%으로 낮추고 나머지 구성종목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있음.

하단은 지난 2025년 9월 KRX 섹터지수의 정기변경 직전에 종목당 20% Cap 상회한 종목들과 정기변경 이후 해당 종목들의 시총 비중(당일 주가 등락에 따라 20% Cap 내외로 시총 비중 형성됨)을 비교하였음.

반도체 섹터지수의 경우, '25년 9월 정기변경 직전 SK하이닉스 29.3%를 기록하였지만 정기변경 직후 21.5%으로 하향조정됨. 삼성전자의 비중은 변경직전 17.9%으로 Cap을 상회하지 않았지만, SK하이닉스의 비중 하향에 따른 비중 상향 조치로 20.0%를 기록함.

KRX 자동차의 경우, 현대모비스 시총비중이 정기변경 직전 28.0%에서 변경후 20.3%으로 인하되었음. 현대차의 비중은 정기변경 직전 16.9%에서 변경후 20.2%으로 상향조정됨.

KRX 철강의 경우 현대제철은 27.4%에서 20.6%으로 하향조정되었고 고려아연은 8.4%에서 24.1%까지 급증하였음.

2025년 9월 섹터지수 정기변경 - 종목당 Cap 조정

섹터지수	2025년 09월 11일 (%)	2025년 09월 12일 (%)
KRX 반도체	SK하이닉스 29.3, 삼성전자 17.9	SK하이닉스 21.5, 삼성전자 20.0
KRX 정보기술(IT)	SK하이닉스 29.4, 삼성전자 18.0	SK하이닉스 21.6, 삼성전자 20.1
KRX 은행	하나금융 19.8, KB금융 19.1	KB금융 20.4, 신한 20.0
KRX 증권	미래에셋 23.6, 한국투자 21.8	미래에셋 20.2, 한국투자 19.7
KRX 자동차	현대모비스 28.0, 현대차 16.9	현대모비스 20.3, 현대차 20.2
KRX 건설	현대건설 25.0, 삼성E&A 18.1	삼성E&A 22.8, 현대건설 17.2
KRX 헬스케어	셀트리온 15.7, 알테오젠 15.0	셀트리온 18.9, 알테오젠 14.5
KRX 보험	삼성생명 27.2, DB손보 20.5	삼성생명 22.5, DB손보 20.7
KRX 철강	현대제철 27.4, 고려아연 8.4	현대제철 20.6, 고려아연 24.1
KRX 에너지화학	LG화학 18.8, SK이노베이션 14.9	LG화학 20.9, SK이노베이션 14.2
KRX 미디어엔터	카카오 25.4, NAVER 21.5	카카오 21.9, NAVER 19.6
KRX 유틸리티	한국전력 29.2, 가스공사 13.3	한국전력 20.8, 가스공사 19.5
KRX 운송	현대글로벌비스 26.5, HMM 20.8	현대글로벌비스 24.3, HMM 19.6
KRX 방송통신	LG유플러스 24.5, KT 22.3	LG유플러스 21.2, KT 20.1
KRX 필수소비재	KT&G 22.1, 삼양식품 12.9	KT&G 19.8, 삼양식품 13.2

자료: KRX, 삼성증권

'26년 9월 KRX 섹터지수 정기변경 예상

KRX 섹터지수 정기변경: '26년 9월 KRX 섹터지수의 정기변경은 각 섹터지수 내 대형주의 시가총액이 급증한 관계로 누적시총 95% 이내가 중대형주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섹터지수 구성방법: 섹터내 누적시총 95% 이내 종목으로 구성, 이에 따라 대형주가 많을수록 중소형주의 편입 가능성은 낮아짐). 이로 인해 섹터지수 내 중소형주의 이탈이 상당수 발생함. 반도체와 정보기술, 헬스케어 섹터 등에서 다수의 중소형주 종목이 제외됨.

반도체 섹터에 테스와 티에스이가 편입되고 정보기술 섹터에 심텍과 피에스케이, 파두가 신규 편입됨. 은행 섹터에서 케이뱅크가 편입되고 제주은행이 제외됨.

신규편입과 제외종목은 9월물 선물만기일 종가 기준으로 해당 ETF에서 리밸런싱을 진행할 예정임. 일부 유동성이 적은 종목의 경우 리밸런싱 과정에서 일회성 충격에 노출될 수 있음.

2026년 9월 섹터지수 정기변경 – 편출입 예정

섹터지수	편입	제외
KRX 반도체	테스, 티에스이	넥스틴, 가온칩스, LX세미콘, SFA반도체, 덕산네오룩스, 필옵틱스, 와이씨, 하나머티리얼즈, 케이씨텍, 에스앤에스텍, HD현대에너지솔루션, 코미코, RFHIC, 태성, 테크윙, 고영
KRX 정보기술(IT)	파두, 피에스케이, 심텍	안랩, 카페24, 코나아이, 쟈멕스, 제이앤티씨, LX세미콘, 덕산네오룩스, 필옵틱스, 와이씨, 솔루엠, 에스앤에스텍, 코스모신소재, 대주전자재료, 태성, 피에스케이홀딩스, 포스코 DX, 파크시스템스, 테크윙, 고영, 서진시스템, 하나마이크론, 한화비전, ISC, 유진테크,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티씨케이, 로보티즈, HPSP
KRX 은행	케이뱅크	제주은행
KRX 증권	-	SK증권,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KRX 자동차	-	넥센타이어, 일진하이솔루스
KRX 건설	-	KCC글라스, 아시아시멘트, 수산인더스트리, LX하우시스, 한일홀딩스
KRX 헬스케어	큐리언트, 제이에스링크, 스피어, 로킷헬스케어, 지투지바이오, 씨어스, 알지노믹스, 리브스메드	아스테라시스, 바이오다인, 휴온스글로벌, 바이오플러스, HLB테라퓨틱스, 휴메딕스, 동아에스티, 바이넥스, 원텍, SD바이오센서, 녹십자홀딩스, 덴티움, 티앤엘, 보령, 큐로셀, 신라젠, 유바이오로직스, HLB제약, 메디톡스, 동아쏘시오홀딩스, 인벤티지랩, 일동제약, 대웅, JW중외제약, 아이센스, 신평제약, 지아이이노베이션
KRX 보험	-	-
KRX 철강	-	동국제강, 세아제강, KGE코솔루션, 대한제강, 넥스틸, TCC스틸, KISCO홀딩스, KG케미칼, 영풍
KRX 에너지화학	-	엔캠, 애경케미칼, 동성화인텍, E1, 유니드, 코스모화학, 한국셀석유
KRX 기계장비	에스피지, 대한조선	엠앤씨솔루션, HD현대마린솔루션, SK IET, SK오션플랜트, 비에이치아이, 신성델타테크, 씨에스윈드
KRX K콘텐츠	CJ CGV, 이노션	넥슨게임즈, 스튜디오드래곤, 디어유
KRX 유틸리티	-	대명에너지, 대성에너지, SGC에너지, 서울도시가스, INVENTI
KRX 운송	-	세방, 한진
KRX 방송통신	-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SBS
KRX 경기소비재	-	화승엔터, 더본코리아, 케이카, 지누스, 조광피혁, 한세실업, 골프존, GKL, 쿠크홈시스, 신세계인터내셔널, LF, 메가스터디교육, 감성코퍼레이션, 아난티, 쿠크홀딩스, 하나투어, 골프존, D동일
KRX 필수소비재	달바글로벌	코스메카코리아, 콜마비앤에이치, 큐렉소, 콜마홀딩스, 브이티, 애경산업, 풀무원, 삼양바이오팜, 오투기, 삼립, 빙그레, 대상, 삼양홀딩스

자료: KRX, 삼성증권

종목당 20% Cap 조정: 반도체와 IT 섹터의 SK하이닉스가 35% 이상의 시총 비중을 기록하고 있어 9월 물 선물만기일 당일에 섹터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리밸런싱 관련 매물압박이 상당 규모로 발생할 수 있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물압박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종목당 Cap 20%를 상회하는 종목으로 현대차(25.5%), 셀트리온(23.3%), NAVER(25.7%), SK텔레콤(29.9%) 등은 관련 ETF에서 일회성 매물 출회가 예상됨.

‘26년 9월 섹터지수 Cap 상회 여부

섹터지수	시총상위 종목 비중 (%)	섹터지수	시총상위 종목 비중 (%)
KRX 반도체	SK하이닉스 37.5, 삼성전자 22.7	KRX 미디어엔터	NAVER 25.7
KRX 정보기술(IT)	SK하이닉스 34.5, 삼성전자 20.9	KRX 운송	현대글로비스 25.4, 대한항공 22.5
KRX 은행	신한지주 23.4, 하나금융 22.2	KRX 유틸리티	SK이터닉스 29.4
KRX 증권	미래에셋 24.0	KRX 에너지화학	-
KRX 자동차	현대차 25.5	KRX 방송통신	SK텔레콤 29.9, 케이아이엔엑스 20.3
KRX 건설	삼성E&A 22.1, 현대건설 22.1	KRX 철강	POSCO홀딩스 21.6, 현대제철 20.6
KRX 헬스케어	셀트리온 23.3	KRX 기계장비	-
KRX 보험	DB손보 21.0, 삼성화재 20.7	KRX 경기소비재	LG전자 21.0
		KRX 필수소비재	KT&G 21.2

참고: 9월 7일 종가기준, 시총비중 20% 상회종목
자료: KRX, 삼성증권

KRX 섹터지수 연동 ETF: 반도체 섹터지수에 연동된 ETF의 자산규모가 8.3조원(레버리지, 커버드콜 포함)에 달하며, 증권 섹터지수 ETF의 자산규모가 6,900억원에 달함. 헬스케어 정보기술 섹터지수 관련 ETF 역시 4,000억원 내외임. 자산규모가 큰 ETF의 Cap 조정과 종목 편출입에 따른 리밸런싱 과정에서 일부 종목의 일회성 변동성 충격에 노출될 수 있음.

‘26년 9월 섹터지수 연동 ETF 시가총액

섹터지수	ETF 자산규모(백만원)	섹터지수	ETF 자산규모(백만원)
KRX 반도체	8,340,890	KRX 보험	60,130
KRX 증권	690,228	KRX K콘텐츠	32,128
KRX 헬스케어	427,962	KRX 에너지화학	31,920
KRX 정보기술(IT)	391,978	KRX 철강	31,090
KRX 자동차	389,654	KRX 기계장비	13,905
KRX 은행	312,221	KRX 경기소비재	13,860
KRX 건설	218,400	KRX 필수소비재	13,629
		KRX 운송	11,560

참고: 9월 7일 종가기준, 레버리지/커버드콜/액티브 포함
자료: KRX, 삼성증권

Samsung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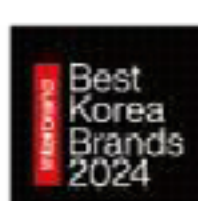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